

No. 16.

상완 신경총 손상의 수술적 치료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이광석 · 채인정 · 우경조 · 구자성*

저자들은 1988년 1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상완총신경손상으로 고려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수술적 치료 후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했던 19명의 환자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. 연령분포는 19세에서 44세로 평균 32.4세였으며 성별분포는 남자 14명 여자 5명이었다.
2. 가장 많은 손상원인은 교통사고였다(12례, 52.6%).
3. 손상형태는 whole arm 형이 가장 많았으며 손상부위별로는 쇄골상부가 15례 쇄골하부가 4례로 쇄골상부병변이 더 많았다.
4. 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신경봉합술 신경박리술, 신경이식술, 신경문합술 등의 1차 신경수술방법과 근건이전술, 신경문합술 및 유리근 이전술 등의 2차 신경복원술이었다.
5. 추시기간은 1년부터 4년 6개월로 평균 2년 5개월이었다.
6. 저자들은 19례중 13례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.

No. 17.

내시경을 이용한 유리 광배근판 전이술

경북대학교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

조병채* · 이정형 · 백봉수

내시경 수술은 minimally invasive technique을 열망하는 많은 외과의들에 의해 연구 발전되어 왔으나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수술 자체의 특성과 특수장비의 요구로 적용이 다소 지연되었다.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내시경 수술은 안면부 및 진두부의 주름제거 성형술 등 주로 미용분야에 사용되어 왔으며, 최근 정비의 개발과 수술 수기의 향상으로 근육, 근막, 신경, 혈관 등의 박리가 가능함에 따라 재건분야에도 그 이용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.

광배근(Latissimus dorsi muscle)은 1970년대 초 유방재건에 이용된 것을 시작으로 흉벽, 두경부 등의 재건에 사용되어 왔고 미세수술에 의한 유리조직 전이술의 발달로 신체 연부조직 결손의 개건을 위한 공여부로도 많이 이용되어 왔다.

본 교실에서는 1994년 12월부터 1995년 7월까지 족부의 연부조직 결손 6례, 하지 연부조직 결손 2례, 총 8례를 대상으로 내시경을 이용한 유리 광배근판 전이술을 시행하였다. 8례 모두 남자였으며 연령별로는 8세부터 62세까지 다양하였다. 저자들은 액와부에 평균 6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하여 혈관경을 박리한 후 내시경을 이용하여 광배근판을 채취하는 open and closed technique을 사용하여 최대 15×22cm 넓이의 근육을 채취할 수 있었다. 이 방법은 공여부의 반흔이 현저히 적고, 술후 통증이 적은 장점이 있으며, 특히 어린이나 여성 그리고 비후성 반흔의 경향이 있는 경우에 권장할 만한 방법으로 사료된다.